

전북사찰은 지금 여름불교학교로 ‘들썩’

금산사·선운사·송광사 등 체험프로그램 인기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전북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7월 27~2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어린이·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선 스님의 지도로 어린이들은 예불, 좌선을 비롯 명상체험, 선 요가 테라피, 예불 등의 불교수행을 체험했다. 또 감정조절 프로그램, 바디스캔, 친구 괴롭히지 않기, 학교폭력 예방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금산사 뒤 김제 모악산 심원암 계곡에서 물놀이기와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져 잊지 못할 산사에서의 추억을 선물했다.

진선 스님은 “학교폭력 등 아이들의 고민이 부모님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로 이번 여름불교학교를 기획했다”며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도 7월 28~30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합장주 만들기, 찬불가를 통한 팀워크활동, 향을 이용한 장엄물 만들기, 부처님 자연물로 꾸미기, 만다라 명상체험, 부채만들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촛불명상 등 공동체 놀이를

금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운사, 공동체 놀이·팀워크

송광사, 한지·연 활용 만들기 활동

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이와 함께 선운사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 바로알기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연수국장 정혜 스님은 “개인의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고 공동체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점차



모악산 계곡서 진행된 금산사 청소년 캠프 레크리에이션 모습(사진 왼쪽)과 고창 선운사의 공동체 놀이 장면(사진 오른쪽)

사찰에서의 수련 프로그램 동참자가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참가 어린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햇살처럼 빛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었다. 송광사 여름불교학교에서는 연밭 만들기, 태극권 배우기, 나만의 옷 만들기, 한지만



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연우 학생은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불교를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매년 여름 학교 친구들과 함께 사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문수사 한산전 낙성식 봉행

자장율사가 창건한 3대 문수도량인 고창 문수사(주지 태효)가 7월 30일 한산전 복원불사 회향 및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이날 제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교, 법현, 범여스님과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 등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 의장, 문수사 불자 등이 참석해 불사회향을 축하했다. 태효 스님은 “문수사 한산전은 2008년 불의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여러 불자님들과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됐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문수사를 전국 최고의 문수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문수사 스님들과 불자들은 단풍나무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는 등 청량산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량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천리의 등불이 희미해진 혼란의 시기에 문수사가 깨달음의 대승도량으로 거듭나고 해동제일의 문수도량으로

전승되기를 기원한다”고 지하였다.

문수사 한산전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현이라 불리는 한산과 습득의 고사에서 유래한 전각으로 문수사의 대웅전과 함께 문수도량인 문수사의 주 전각이다. 한산전 편액은 지암 류승훈 선생의 글씨와 황금두 선생의 서각으로 제작됐다.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된 한산전은 정면 7칸, 측면 3칸, 넓이 148㎡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불자들의 신생활공간과 수행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제 의자왕 4(644)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문수사는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전해지는 유서깊은 도량으로 주변의 단풍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가을이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반대

7월 28일 상계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결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의 철거를 위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신홍사 주지 우송)는 지난 7월 28일 상계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왕시루봉 외국인선교사별장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정부기관에 요청한다”고 결의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가 지난 수년간 인요한과 일부 선교단체에 맞서 진행해왔던 외국인선교사별장의 철거문제를 교구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향후 이 문제가 종단적 차원에서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사주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인요한의 개인적인 욕심에 일부 선교단체가 앞장서고 정부관계자들의 종교편향적인 태도가 일조하여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는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일부 종교편향적인 정부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종단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본사주지들은 구체적 내용으로 “교육부 장관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국유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요한과 일부 선교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와 불법점유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하여 문화재등록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해

명해야 할 것”과 “문화재청은 논의가치조차 없는 시설물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를 스스로 밝혀 본 사안이 인요한의 지리산 별장 확보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부 관련기관에 급변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총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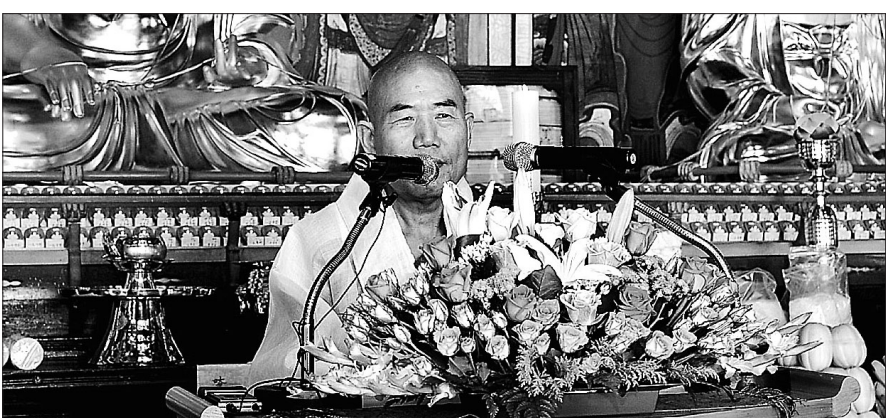
한편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1920년대 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등 서양 선교사들이 노고단 인근에 수양관 56채를 지으면서 시작되었으나 6·25전쟁과 대풍 등으로 수양관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후 터남 남다시피 한 곳을 휴린튼(한국명 인휴·1926~1984) 선교사가 1962년부터 노고단에서 약간 떨어진 왕시루봉 일대에 수양관을 다시 지어, 현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 12채가 남아 있다.

건물들은 1962년 건축물 증·개축 및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1972년 서울대에 기부 제납돼 등기부상 관리청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됐다. 개신교계는 지난 2004년부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開眼처럼 신도들 마음도 개안을”

대흥사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 및 회향법회



해남 대흥사(주지 법각)는 7월 29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위) 이날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에서는 주지 법각 스님의 퇴임인사도 함께 진행됐다.

대흥사 삼존불은 지난 2013년 10월 복장유물 조사를 통해 제작시기가 광해군 4년(1612)에 만들어진 국보급의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평가받았다. 특히 1600년대 초의 문화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흥사 삼존불의 연대가 밝혀지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회향법회에는 조실 보선스님, 주지 법각스님을 비롯해 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공의식과 점안의식, 법문이 진행됐다.

보선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부처님

을 모시는 것은 불법승(삼보)을 모시는 것이다. 대중을 이를 통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부처님의 개안(開眼)을 하는 것처럼 신도들의 마음도 개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8년간 주지소임을 마치고 이날 회향하는 법각스님에 대해 “그동안 사찰의 모든 방면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지하였다.

이날 퇴임 전 마지막 대중행사를 개최한 법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주지소임 8년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며 “여러 스님들과 중무소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욱 행복해요”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4기 여름캠프 개최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4기 여름캠프가 지역 청소년 30명과 지도교사 등 4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7월 25~26일 진안 마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전북불교네트워크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는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단조로운 학교생활과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북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름캠프에서 공동체 놀이를 통해 이웃과 친구가 하나되는 법을 익혔다.

또 강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한 단력 훈련과 마인산 스토리 트레킹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여름캠프에 참여한 남기훈 군(전북제일고 1)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법도 배우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장다인 양전북여고 1)은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여름캠프를 통해 많이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도사찰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요

남도사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해남 대흥사, 미황사, 백련사, 일지암 등 사찰과 행촌미술관, 해남종합병원 등은 ‘풍류남도 문화방향’을 주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남도답사1번지로 손꼽히는 강진, 해남의 예술적 가치를 일깨우고, 남도의 문화원형의 재발견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작가도 불교계의 대표적 등공예 작가인 전영일 씨를 비롯 40여명에 달한다.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대표 청학)에서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문영민 작가의 초대전시회 ‘관계의 감각’을 개최한다. 문영민 작가는 현재 현 매사추세츠 애머

스트 주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특하면서도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영민 작가는 1995년부터 18차례의 개인전과 32차례의 단체전을 가진 바 있고 여러 차례의 전시 기회를 추진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추구해왔다.

작가는 이번 초대전의 제목인 ‘관계의 감각’이라는 의미에 대해 “동양의 관습에 뿌리를 둔 것으로, 망자의 삶의 종결에 필요한 격식과 속죄, 제의식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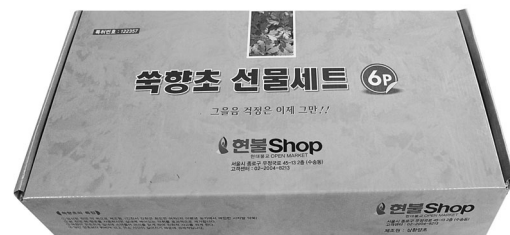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썩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썩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구성 : 6개 ·가액 : 30,000원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구성 : 6개 ·가액 : 30,000원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